

1970년대 한국 축산업은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국민경제 규모 및 소득의 증대, 그에 따른 의식주 생활양식의 변화 등 산업 근대화의 결실이 그 배경 이었다. 아울러 축산 진흥의 기치를 걸고 보호 육성 시책을 꾸준히 진행해 온 정책 당국의 노력도 간과할 수 없었다. 사료산업의 발육기에 해당하는 그 10년 동안, 종축 및 배합사료 원료의 수입·보급,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단지화·기업화 추진, 처리·가공 시설의 육성·지원, 가축 질병 대책, 유통구조 개선, 세제 특혜 등 각종 시책이 이어졌던 것이다.

1967년에 설립된 카길애그리퓨리나는 최고급 동물 단백질을 보다 경제적으로, 보다 많이 생산해 농가 소득 증대와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땅의 축산업 발전과 함께 해왔다. 한국 축산업의 발전에 발 맞추어 1981년의 시작과 함께 제3공장인 군산공장의 준공으로 서막을 장식했다. 군산공장이 가동되면서 퓨리나의 제품과 서비스가 완벽하게 전국 어디서나 고객 가까 이에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것이다. 군산공장은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에 있는 임해공업단지 내에 대지 15,000평, 건물 2,790평 규모로 준공됐다. 1981년 2월 9일 열린 준공식에는 전라북도 도지사 등 각 계 인사들과 많은 축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 하게 치러졌다. 제1대 군산공장 공장장은 이한기 지사장이 맡았다. 이후 군산공장은 호남과 충남, 충북의 사양가들에게 우수한 품질의 사료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공급하여 이들 지역의 축산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해 나갔다. 사료업계에서 최신 자동화 공정의 효시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는 군산공장은 크게 5개 부분의 설비로 갖추어졌 다. 이 모든 설비는 중앙 조작에 의한 자동생산으로 연결 돼 있었다.



퓨리나코리아 제3공장 군산공장 준공



1985년 1월 24일 퓨리나 군산 펠릿사료 시설 완공

지난 1981년 가동 이후 약45년의 노하우로 2025년에 누적 1,200만톤의 사료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자리 매김하였으며 지속적인 설비 투자로 1981년에 약 5,000톤/월에 생산하는 공장에서 현재 40,000톤/월 생산하는 공장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군산을 대표하는 사료기업으로 발전하였다.

카길애그리퓨리나는 군산공장은 2005년 HACCP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무결점 위해요소 중점 관리를 실현하고자 하며, 사료 안전, 원료 품질, 제품의 안전성까지 전 과정에서 식품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더해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없었던 1970년대부터 철저한 산업안전 관리 개념을 경영에 도입해 산업 현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군산공장에 사업장에 출입하는 모든 직원과 협력업체, 고객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하고 있다.

카길애그리퓨리나 군산공장은 2001년 1월부터 약 3,800일 동안 산업재해 없이 운영되어, 한국 산업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무재해 10배 달성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 이 성과는 단순한 안전관리 수준을 넘어, 기업문화 속에 안전의식이 깊이 뿌리내린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매년 산재 예방 활동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안전캠페인, SEE-SAY-STOP 등 군산공장의 안전문화 실천이 산업재해예방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사진 - 이규태 공장장)



최근 이상 기후와 전염병, 전쟁 등 각종 인플레이션 요인들에 의해 사료 생산·공급을 위한 제조비와 물류비 상승 압력이 어느 때보다 거센 상황이다. 군산공장 역시 지난해 전기와 가스 같은 에너지 단가 및 유류비 상승에 따라 매우 높은 수준의 제조비·물류비 상승 요인이 있었고, 물론 현재까지도 이런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군산공장 운영부에선 이러한 외부 인플레이션 요인들을 상쇄하기 위한 여러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생산성 개선을 통해 개별 기계의 가동 시간을 줄여 단위 생산량 당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고, 계획적 생산을 통한 에너지 단가가 낮은 심야 시간을 집중적으로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효율적인 유지보수 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 낭비 요인을 줄이는 효율 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물류비 절감을 위해 글로벌 차원의 물류 최적화 프로젝트도 가동하고 있다. 이런 모든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개선 활동 구조를 확립해, 생산성을 포함한 비용, 품질, 안전, 고객만족도 등 주요 지표를 관리해 나가고 있다.

카길애그리퓨리나는 온실 가스를 야기하는 소의 메탄가스 배출을 감축시킬 대안으로 다양한 기술을 접목, 2021년 6월에 국내 최초로 저메탄 사료를 출시했다. 이와 동시에 데이터 농축산업 스타트업체인 그린랩스와 '저메탄 사료 개발 및 유통사업'을 위한 상호 협력을 맺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저메탄 사료 보급을 통한 축산분야 탄소 감축과 추가 연구개발, 보급 등과 같

은 공동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향후 자동화 및 디지털 기반의 생산 시스템(스마트팩토리)를 위한 지속적인 개발의 투자와 군산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고용, 교육, 환경 프로젝트 확대 등으로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카길애그리퓨리나 군산공장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활동, **연탄 배달 봉사**, **독거노인 지원**, **김장 나눔** 등 따뜻한 나눔 활동 등을 전 직원들이 실천하고 있다.

군산공장 이규태 공장장은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카길애그리퓨리나 군산공장의 가장 큰 방향이다. 이 방향을 위해 군산공장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 고객과 함께 대한민국 축산의 선구자로 성장은 물론 단순한 생산 시설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